초기불교·간화선 통합명상 '禪定' 이끈다

참불선원 각산 스님, 10월 26~29일 명상힐링캠프

세계명상수행승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이 초기불교와 간화선을 접목한 3박4일 대규모 통합명상 집중수행캠프를 연다.

참불선원과 BBS불교방송은 10월 26~29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서 '세계명상수행승 각산 스님의 명상힐링캠프'를 개최한다. 캠프는 2600년 전 붓다가 행했던 성불명상법인 초기불교 수행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법인 간화선의 통합수행을 체험하는 자리로, 선착순 모집한 500명의 대중이 함께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캠프는 26일 오후 만해마을에 도착해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입재 및 기조법문으로 시작된다. 27일부터는 △예불 및 명상실참 △수행지도 및 법문 △즉문즉설 등이 3일간 쉴 새 없이 이어진다. 이 자리서 각산 스님은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명상을 지도하고, 참가자들을 깊은 통찰의 세계로 이끌 계획이다. 또한 수행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수행기간동안 묵언명상이 진행되며 휴대폰·음주·흡연이 금지된다. 아울러 귀걸이와 반지 등 귀금속 착용을 비롯해 짙은 화장과 향수 사용도 불가능하다.

각산 스님은 "현재는 과거의 수많은 실패 속에서 나타난 결과이고, 괴로움은 괴로움이 생겨난 자리에서 소멸한다. 욕심이 나를 가로막을 때, 화가 날 때, 삶이 힘겨울 때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수행해야 한다"며 "국에 국자가 담겨 있어도 국자는 국 맛을 모른다. 이처럼 머리로 풀이한 것과 몸으로 익힌 것은 다르기에 참선만이 욕망과 존재, 미혹으로부터 대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캠프 참가인원은 선착순 500명이며, 참가비는 9만원(숙식비 19만원 별도 신청)이다. 캠프 참가자는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명상지도사 이수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참불선원 및 BBS불교방송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하다. 1577-3696

윤호섭 기자



만해마을서 집중수행
500여 명 선착순 모집

'조각보' 만들 듯 종교공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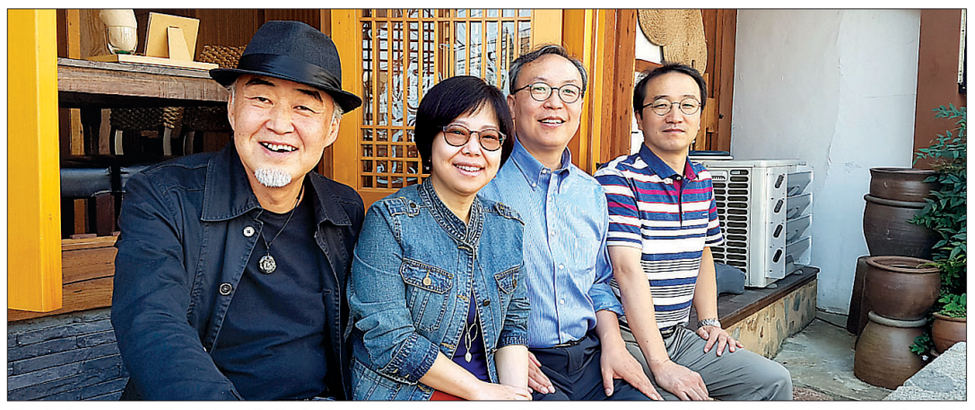
종교개혁 500년·원효 탄생 1400년
손원영 교수 등 종교평화예술제 연다

훼불행위로 파손된 법당을 돕기 위해 모연에 나섰다가 소속 대학에서 파면 처분을 당한 손원영 서울기독대 신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종교공존을 위한 평화예술제를 연다.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과 원효대사 탄생 1400주년을 맞아 각 교단과의 연계 없이 풀뿌리 종교평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한다는 복안이다.

손원영 교수 불법파면 시민대책위원회와 (사)한국영성예술협회, 마지 아카데미는 10월 13~14일 서울 경동교회와 정법사에서 이 같은 주제로 종교평화예술제를 개최한다. 첫날 오후 2시에는 경동교회 장공채플서 '종교개혁을 함께 생각한다'는 주제로 각 교계 학자들이 루터·원효에 대해 개혁을 논한다. 불교계서 이도흠(한양대)·이찬훈(인제대)·박병기(한국교원대) 교수가, 기독교계서 이정배(현장아카데미)·백소영(이화여대)·황경훈(가톨릭 우리신학연구소) 박사가 참여한다. 사회는 이찬수 서울대 교수가 맡으며, 금선사 주지 법안 스님이 축사를 한다.

둘째 날 오후 2시 정법사 마당에서는 '종교평화콘서트'가 열린다. 연출은 조성진 한국영성예술협회 예술감독이 맡으며, 종교색채를 최대한 배제한 공연으로 종교 공존의 의미를 전할 계획이다. 범패로 공연이 시작되며 조각보 춤과 퍼포먼스, 패치워킹 댄스 등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조 감독이 선보이는 몸짓 '원앙부인의 꽃밭'은 월인석보에 나오는 '원앙부인 본풀이'를 모티브로 해 무속·불교·기독교적인 요소를 가미했다.

9월 28일 기자간담회서 손원영 교수는 "루터와 원효대사 두 분의 공통점은 개혁가라는 점이다. 한국기독교와 불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지만 후학들이 서로를 배울 기회가 없는 것 같아 자리를 마련했다"며 "교단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이웃종교와의 우정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종교평화예술제를 준비하는 사람들. 왼쪽부터 조성진 예술감독, 김현진 마지 대표, 손원영 교수, 오범석 시민대책위 총무.

13~14일 경동교회·정법사
'개혁' 주제 학술토론회와
평화콘서트로 화합 강조

소속 대학에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그가 이 같은 예술제를 준비한 이유는 또다시 '종교평화'였다. 손 교수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투쟁이라도 하면서 항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받았다. 하지만 그건 종교평화를 위한 일 때문에 벌어졌기 때문에 해결방법도 가능하면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예술에 관심이 많고, 이를 통해 종교문제를 공론화해 시민들에게 공존의 필요성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성진 감독은 머리만이 아닌 몸을 통한 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감독은 "종교평화를 머리나 말로만 하면 되레 갈라지기 쉽다. 하지만 춤과 같이 몸으로 나누면 배타적인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다"며 "인정하기 힘들다면 혐오는 하지 말자. 몸으로 느껴 함께 살 수 있는 이웃이라는 걸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술제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주최 측은 예술제를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매년 열어 서로의 종교를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별도의 소셜펀딩을 통해 종교공존을 사회적 이슈로 끌어내고, 펀딩 참가자를 위한 리워딩 공연도 11월 개최할 예정이다.

김현진 마지아카데미 대표는 "불교와 기독교라는 카테고리보다는 종교가 어떻게 대중과 살아갈 것인지 화두를 던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종교 각각의 색깔을 잃지 않은 채 평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함께 즐기는 놀이로 승화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청와대 미남불 환지본처, 보존 환경 조성부터

조계종, 9월 25일 입장문 발표… 정부에 공문 발송도

본래 자리서 성보 가치 빛나
"정부 차원 대책 마련해달라"
혜문 "신앙보단 문화재로 봐야"

일본 데라우치 총독에 의해 경주를 떠나 청와대로 흘러간 석조여래좌상〈사진〉에 대해 조계종이 "무작정 옮기는 것보다 보존·신앙 환경 조성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대변인 정문 스님과 문화부장 정현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9월 25일 발표하고 일부 시민단체들 주장이 불교계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최근 시민단체인 문화재제자리찾기와 경주지역 문화·시민단체는 불교계 및 관련 학계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청와대 불상의 경주 이전에 관한 일방적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면서 "종단은 모든 불교문화재가 조성된 당시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종교성과 역사성을 간직한 문화재로 잘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 석조여래좌상'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문화재청·서울시청에 보낸 공문을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불교계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보존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며, 청와대 석조여래좌상의 신앙적 환경 조성을 위해 원래의 자리로 이전되기를 바라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고 말했다.

실제 학계에서는 청와대 불상의 제자리를 놓고 경주 남산이라는 의견과 도지동에 있었던 사찰 이거사라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화재시민사회단체 측은 이전 장소로 '국립경주박물관'을 꼽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문화재 당국은 단 한차례의 진지한 논의의 장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경주지역의 문화·시민단체들은 불교계의 입장을 왜곡하면서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사안에 대해 관계 기관의 조속한 논의와 노력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 당국자들의 각성과 진지한 접근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계종의 입장에 대해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옮겨진 출처 미상의 불상이기 때문에 신앙 차원보다는 문화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혜문 대표는 "청와대 불상이 옮겨진 것은 1~2년 전 일이 아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이운된 것은 하루 속히 경주로 이운해 문화재적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폐사 위기 스님들, 사찰수호연합회 발족

9월 25일 조계사 앞에서

"수행환경 수호를 위해 범종단의 통일된 목소리로 대오를 형성해 끝까지 정진할 것입니다. 수행환경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하는 이를 더 이상 목도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개발 공사로 수행환경 피해를 받고 있는 사찰 10곳으로 구성된 전국사찰수호연합회(회장 청호, 이하 전수련)는 9월 25일 공식 발대식에서 "각종 개발로 인한 사찰의 강제 수용과 수행환경 침해로 인해 폐사 지경에 이른 사찰들도 있다"면서 "정부 및 관계기관들의 전향적 검토와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이들 사찰들은 아파트, 도로 등 개발공사로 소음 및 분진 피해를 비롯한 수행환경 침해를 받고 있으며, 심한 곳은 폐사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 특히 수도사·심택사 등 문화재 보유 사찰은 문화재 관리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행환경 침해에 대한 직간접 피해 보상을 요청하는 한편, 토지보상법의 강제수용 제도를 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수련은 "현 토지보상법은 사찰의 종교 및 문화적 대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적 형식요건만 갖추면 강제수용 할 수 있다는데 근본 문제가 있다"면서 "일반토지와 건축물과 달리 종교단체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교의 사회적 순기능을 고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보상법이 규정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보상책도 개선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전수련은 "종교단체의 가장 큰 자산은 구성원인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에는 강제수영에 따른 재적신도 감소 혹은 이탈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전무하다"면서 "운영손실 보상규정을 신설, 보상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수련에는 광주 수도사, 삼척 안정사, 대구연경지구 대원사, 영등포 해인사, 은평 심택사, 양산 원각사, 하남 대원사, 대전 극락정사, 진천 원각사, 칠곡 화성사가 포함돼 있다. 박아름 기자



인문학에 이어 이·공학에서도
중심이 되겠습니다.

인문학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온 동국대학교.
이젠 이·공학 분야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배 규모로 확장된 이공계 인프라와 특성화 정책으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향해 나아갑니다.

- 2017 한국경제신문 이공계대학 평가
  정량평가 7위(종합 11위)
- 이공계 인프라 3배 확대
  BT분야 특화캠퍼스인 고양 바이오메디캠퍼스 육성
- 이공계 특화 대형국고지원사업 운영
  미래부 SW 중심대학 선정(4년 간 90억 투입)
-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 운영
  여성융합공학 연계전공 / 여성생애주기 맞춤형 진로개발교육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운영
  (5년간 약 220억 원 내외의 국고 지원)
  사회 수요 창출형 인재양성 및 CSI(CT, ST, IT)기반의
  행복산업 육성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